

아세안 넘어 중동 新시장 개척

전북도, 두바이 뷰티월드 6개사 참가... 계약 75만불·상담 3백만불 성과 거둬

전북도는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2019년 두바이 국제 화장품 및 미용전시회'에서 전북관을 운영했다.

도내 중소화장품 및 미용기기 생산기업 6개사가 참가하여 현지바이어와 75만불의 계약을 체결했고, 3백만불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거뒀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는 동 전시회는 중동 최대의 화장품 및 미용산업 비즈니스의 장(場)으로써 중동지역의 화장품 분야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시장진출을 타진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최적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도내기업 대상으로 매년 12회 내외의 해외 단체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도는 구매력이 높은 아세안시장 개척하고자 아세안시장과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올해로 처음으로 참가하는 전시회로서 당초 참가기업들의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전시회의 규모와 수준이 상당히 높고 중동을 비롯해 구매



전북도가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2019년 두바이 국제 화장품 및 미용전시회'에서 전북관을 운영했다.

력이 높은 유럽, 북아프리카, 인도 지역의 바이어까지 참가해 실제상담이 이뤄져 성과가 기대이상으로 평가된다.

도 이남섭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중동 바이어는 도내 기업제품에 호의적이며, 상품가격

에도 덜 민감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서, "향후 무역협회와 협력을 강화해 전남방국가 뿐만 아니라 중동 新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추진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9년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와 센터는 기술 기반 제조·서비스 분야 창업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성공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9년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기업 18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도내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의 제조·서비스 분야 창업아이템으로 고부가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가진 기업 및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본 사업화 자금으로는 창업 초기

필수적인 항목들에 한하여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김미정 일자리정책관은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조센터의 역할을 계속 만들어 갈 계획"이며,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규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날 25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오늘부터 동물용의약품 일제조사 실시

전북도는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4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통해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9개소, 동물병원 199개소, 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소 141개소 등 총 369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시설로의 적합여부, 수의사처방제 준수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

의약품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와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등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의 판매, 광고 및 판촉,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살충제 판매 등을 조사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동물의약품 수거·검정은 도내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40건), 일반 화학제제(20건) 총 60건 수거 후 유

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 효력평가를 실시한다.

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삼각농정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부적합한 동물 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믿고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60세 이상 노인일자리도 간편하게 앱으로 찾아요"

전북도, 전국최초 노인일자리 애플 개발 보급 방문이나 전화연결 불편 없이 회원가입으로 구인·구직

전북도 노인장애인과는 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 구인·구직 애플(이하 앱) '전북노인일자리센터'를 개발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앱은 기존 일자리 관련 앱과 달리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전용으로 4대 보험 미 가입 농촌지역, 일용직, 단기직 등 구인·구직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노인일자리 앱은 스마트폰을 소지한 도내 14개 시군 도민이라면 누구든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북노인일자리센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후 간단한 회원가입을 마친 후 60+인정보 메뉴의 해당 시군에 들어가 일자리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간단한 터치만으로 노인채용 구인정보 및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관련 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에서는 기존 직접방문 및 전화연결로 구직활동을 하는 불편함에 대하여 최근 스마트폰을 구비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베이비부머 등 은퇴를 앞둔 장년층 증가와 자녀들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 확대로 구인구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앱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앱은 60세 이상 구인을 원하는 업체 정보를 실시간 업로드 하는 구인·구직 서비스와 노인취업관련 교육접수, 노인일자리 및 교육영상 시청,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도정소식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노인생산물 안내와 판로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노인들의 구직활동은 센터를 직접 방문해 구직을 등록하고 매번 전화 또는 방문으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나에게 맞는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앱이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센터를 방문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매일 실시하는 취업이카데미와 찾아가는 이동상담 홍보로 앱을 활용한 구직 활동법을 전파하고 앱 활성화로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전국장은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며 앱 활성화로 전북 노인일자리 중심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면서 앱 개발로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취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 양봉산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신뢰받는 안전한 꿀 생산·노동력 절감 위해 확대 지원

전북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봉산업의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3억원이 늘어난 5개 분야에 22억원을 확대 지원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7종의 기자재를 지원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꿀 생산을 장려하는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16억원, 양봉농가의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동 꿀 생산장비를 지원하

는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에는 3억원을 지원하고, 도내 토종벌산업을 재육성하기 위해 남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을 가진 벌을 보급하는 토종벌 육성사업은 1억원을 지원하며,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농가는 물론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말벌을 퇴치하는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는 5천만원 등이다.

또한 전국 양봉인의 사기진작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올 가을 정읍

에서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양봉인들의 정보교류의 장을 열 계획이다.

전북도는 양봉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양봉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일련의 사업이 농가 수익성 향상과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꿀벌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라지고 있는 말벌의 개체 수 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 양봉농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이제 안심하세요"

전북도, 지속적인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상 사업 추진

전북도는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관리로 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서식지 막이 부족 등으로 먹이활동을 위해 농경지, 인가 등에 출몰하는 유해야생동물의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주요 유해야생 동물 서식밀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유해야생동물 서식밀도 실태조사 결과, 멧돼지, 고라니, 평, 청솔모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중 농작물 주요 피해액의 주종을 차지하는 유해

야생동물은 멧돼지(80%)와 고라니(15%)로 전체 피해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매년 추무부처인 환경부에 국비 증액을 요청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방조망 시설 등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도민들에게 지원하고, 도심지, 농경지 등 유해야생동물 진입 경로에 피해예방을 위한 철책 등 차단시설 등을 설치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의 최대 활동기인 농작물 수확기(8월~11월)에 매년 약 330여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각종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으며, 또한, 동절기에 수렵장 등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했다.

불가피하게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도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로 농작물의 생육단계 등에 따라 최대 300~5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농가소득보전 및 민원 등을 해소하고 있다.

도 김용만 환경복지국장은 "지속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림업에 종사하는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생태계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